

셀예배 교안

솔로몬의 성전 건축 (2)

왕상 6:1-13

“건물이 아니라 사람을, 성과가 아니라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”

본 교안은 주일 설교 「솔로몬의 성전 건축(2)」의 은혜를 셀 안에서 나누고 삶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. 인도자는 셀원의 상황에 맞추어 질문을 취사선택하시고, 나눔이 정죄가 아닌 은혜의 격려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.

1. 마음 열기 (Ice-Breaking · 10분)

- 최근 “좋은 것을 해내려고 애썼는데,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쳤다” 싶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. (예: 일에 몰두하다 가족과의 시간을 놓친 일 등)
- 나에게 신앙생활은 주로 ‘무엇을 하는 것’에 가깝습니까, ‘누구와 함께 있는 것’에 가깝습니까?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.

2. 찬양과 기도 (10분)

- 찬양 : 새찬송가 449장 「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」, 405장 「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」
- 대표기도 : 한 주간 우리의 열심이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.

3. 말씀 안으로 (본문 관찰 · 15분)

본문 열왕기상 6:1-13을 함께 소리 내어 읽습니다.

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...

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

— 열왕기상 6:11-13

1. 성전 건축이 한창인데, 6장 2-10절의 건축 기록은 의외로 모호하고 담담합니다.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
2. 건축 이야기 도중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십니다(11절). 그런데 하나님은 건축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(12절)?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‘본심’을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?
3. 출애굽기 15:13,17은 구원의 목적지를 “주의 거룩한 처소”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고린도 전서 3:16과 에베소서 2:22은 그 처소가 결국 누구라고 말합니까?

4. 삶으로 (해석과 적용 · 20분)

1.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자 법궤를 부적처럼 전쟁터로 끌고 나갔습니다(삼상 4장). 오늘 우리도 하나님(혹은 신앙의 형식·직분·헌금·봉사)을 ‘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’으로 삼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? 구체적으로 나눠 봅시다.
2. “마르다와 마리아”(눅 10:38-42)의 이야기에서, 나는 지금 마르다에 가깝습니까 마리아에 가깝습니까? 주님의 발치에 앉는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 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?
3. 사도행전 17:24은 하나님이 “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”고 선포합니다. 내 신앙이 특정 장소·형식·성과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,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(요 2:19-21) 안에 거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나눠 봅시다.
4. “종교적 거품을 걷어낸다”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? 이번 한 주간, 억지가 아니라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순종 한 가지를 정해 봅시다.

5. 결단과 중보 (10분)

- 오늘 나눔 중 가장 마음에 남는 한 가지를 서로 나누고, 셀원의 적용을 위해 짝을 지어 중보합니다.
- 공동 기도제목 : ① 형식과 성과에서 관계로의 회복 ② 그리스도 안의 참된 안식 ③ 기쁨에서 나오는 순종

6. 인도자 참고 (Leader's Note)

이 본문의 핵심은 “건물 vs 사람, 성과 vs 관계”의 대조입니다. 나눔이 “봉사를 하지 말자”거나 “열심이 나쁘다”는 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. 문제는 열심 자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(롬 10:2-3).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계에서 흘러나온 열심은 복이지만, 관계가 빠진 채 성과만 쫓는 열심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짚어 주십시오. 마무리는 반드시 정죄가 아니라,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기쁨(마 11:28)의 초청으로 맺어 주십시오.